

한국 기독교 미래 예측,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그리고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한국기독교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 기독교 교인 수의 감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유지의 문제, 신학교 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협력하여 주요 교단의 과거 20년치 교세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2050년까지 한국기독교 인구 수를 예측하는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게 의뢰하여 오늘 넘버즈를 통해 발표한다.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는 현재 한국교회가 놓인 조건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상황을 미리 예측, 한국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응, 반전의 기회로 삼아 한국교회가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현황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국가 존망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출석 교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한교총에서는 이러한 예측의 실상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향후 30년간의 한국기독교인 변화를 예측하는 「한국기독교 교세 현황 및 추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체감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듬고 있는 우리는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나은 길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미 종교인구의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기독교 인구 역시 201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040 세대의 감소세와 청소년 교인의 감소 역시 두드러진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교인의 노령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기독교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물을 통해 한국교회 모든 교단, 기관과 단체, 교회가 다음 사항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첫째, 미래를 혁신하고 더욱 부흥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읍시다.

모든 교단과 신학교, 전도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교인 인구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구조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의 모든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읍시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 복음 역시 인류 역사의 변화 속에서 '진리'의 생명력을 갖고 지속해 왔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변치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참된 변화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셋째, 이번 조사 추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 추계 결과를 보면서 절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한국교회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에 헌신하며,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전도에 열중하면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흥의 역사를 쓰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여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어 냅시다. 그리하여 이 통계가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록해 봅시다.

끝으로 이번 조사를 위해 교세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해 주신 회원 교단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10일

오정호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한교총 본 조사 담당 책임 대표)

분석개요

주 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 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사 및 분석	마크로밀엠브레인 /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김현중 교수팀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1. 한국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1단계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15개 교단에 교세통계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교세통계 자료에는 교인 수, 교회 수, 목사 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단별로 생긴 결측치는 인구 통계 data 등을 활용하여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2023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독교 교인 수 예측을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국/시도별 추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처리 전 과정에서 인구통계와 교단통계의 일치성을 위하여 지역 및 연령대 통계를 필요시 보정하였다.

2단계로는 예측의 정교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 4,751명과 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종교 여부, 믿는 종교, 교회 출석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2023년의 기독교인 비중을 파악하고, 향후 예측의 정교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3단계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및 2015년 인구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연령별 기독교인 수 추정 시 기준점으로 삼았다. 또한 교인 수 변동의 원인 변수들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1인 가구 수 등의 주요 사회적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Desk Research도 병행하였다.

2.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었는데,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로서 각 지역별 및 연령대별 인구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자살률, 1인 가구 수, 연령대별 근로시간, 인터넷 이용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예측모델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별 교세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교인 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시계열 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연령대별 추세 차이를 반영하는 변수도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예측 모델로 Autoregressive Linear Regression, Random Forest Regression, Panel Regression, Deep Neural Network 등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및 통계적 모델을 통해 Training 및 Validation을 진행한 결과, 실제 데이터와의 일치도 (R^2) 및 평균절대오차율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이 가장 우수한 Autoregressive Linear Regression 모델을 최종 예측 모형으로 선정했다. 이 모델을 활용해 2023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독교 교인 수를 예측하였다. 각 권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교인 수 예측은 각 지역별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통합기법으로 추계하였다.

분석자료

01 Basic Information : 교단별 교세 통계 자료	
자료 기간 범위	2001~2022년
내용	교단별 과거 22년간 교세 통계 자료 단위 : 전체, 16개 광역단체별, 도시규모별 자료 범위 : 교인 수, 교회 수, 목사 수, 신학생 추이
수집자료 활용	2001~2022년 총 교인 수 증감 추세 정보 활용 2001~2023년 교세 정보 추정 시 각 결측치는 인구통계 DATA 등을 활용하여 추정 보강함
조사 협력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02 Survey : 전국민 대상 조사			
조사 개요	구분	성인 조사	청소년 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의 청소년(중고생)
	조사 방법	휴대전화 RDD (무작위로 생성된 무선 전화번호 조사)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4,751명 (유효 표본)	총 7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법	성별/학교급별/권역별 비례할당 추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준)
	표본 오차	±1.4% (95% 신뢰수준)	±3.7% (95% 신뢰수준) (무작위 추출 가정시)
	조사 기간	2023년 10 월 18 일 ~11 월 1 일 (15일간)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3일(7일간)
내용	- 교인 수, 정기 출석 교회 여부(본인, 청소년 자녀), 교회 출석 빈도 - 가구 소득 수준, 출석 교회 여부, 교회를 떠나게 된 시기 및 이유		
수집자료 활용	2023년 총 기독교인 수 비중 정보 활용		

03 Desk Research : 주요 사회 지표	
자료 기간 범위	· 2001~2023년(통계) · 2024~2050년(추계)
내용	· 인구 지표 : 시도별/연령대별 인구 · 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총 근로시간 · 사회 지표 : 1인 가구 수, 자살률, 인터넷 사용률
수집자료 활용	인구 센서스 자료(2005년 및 2015년)는 2005년, 2015년 세무 교인 수 추정시 활용, 전체/지역별/연령별 교인 수 추정시 기준점으로 활용 통계청 전국/시도별 인구통계 자료는 총 교인 수 추정시 활용 및 각종 결측치 보강을 위한 추정 기초 정보로 활용

추계방법

- 교세 예측을 위한 모델을 상정하기 위해 아래 4가지 분석 모델의 Training 및 Validation을 진행함
- 비교 결과 설명력 및 독립변수를 가장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Linear Regression을 최종 교세 예측 모형으로 선정함

AR Linear Regression

	coef	std err	t	P> t
intercept	8.911678	2.876919	3.100	0.002
total_population	0.0027	0.004	14.705	0.000
economic_growth_rate	-0.0013	0.003	0.167	0.867
working_hours	406.8792	52.338	7.771	0.000
single_household_tax	-0.0028	0.003	-0.220	0.827
working_hours	1.5740	25.052	0.309	0.758
internet_usage_rate	0.0000	0.000	0.000	1.000
christians_lag1	0.5900	0.015	44.240	0.000
year	-0.0012	0.000	-16.162	0.000
age_10	-0.0012	0.000	-19.875	0.000
age_20	-0.0010	0.000	-14.274	0.000
age_30	-0.0008	0.000	-10.203	0.000
age_40	-0.0006	0.000	-7.176	0.000
age_50	-0.0004	0.000	-5.079	0.000
age_60	-0.0002	0.000	-1.800	0.074
age_70	-0.0001	0.000	-0.666	0.504
total_population	1.758e-04	5.140e-07	5.508	0.000
economic_growth_rate	-0.0000	1.816e-02	-0.002	0.999
working_hours	-0.0019	0.007	-0.266	0.793
single_household_tax	0.0000	0.000	0.000	1.000

- Christians(현 시점의 교인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자기선형회귀(Autoregressive Linear Regression)
- 인구수*연령대 Interaction 효과 모델에 포함

R² : 0.991
MAPE: 0.11

Random Forest Regressor

- Christians를 종속변수로 하는 랜덤 포레스트 회귀
- GridSearchCV를 이용한 튜닝
- Christians_lag1, Total_population만 중요한 것으로 산출

R² : 0.98
MAPE: 0.089

Panel Regression

	single_household_tax	working_hours	christians_lag1	age_10	age_20	age_30	age_40	age_50	age_60	age_70	pop * age_10	pop * age_20	pop * age_30	pop * age_40
intercept	-0.0102	0.0039	-3.6913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total_population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economic_growth_rat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working_hours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single_household_tax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christians_lag1	0.5900	0.015	44.24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10	-0.0012	0.000	-19.87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20	-0.0010	0.000	-14.27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30	-0.0008	0.000	-10.2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40	-0.0006	0.000	-7.17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50	-0.0004	0.000	-5.07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60	-0.0002	0.000	-1.800	0.07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ge_70	-0.0001	0.000	-0.666	0.5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op * age_1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pop * age_2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pop * age_3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pop * age_4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Linear models → PanelOLS 사용
- 패널 데이터의 개체, 시간 차원 정의 후 멀티 인덱스화 (개체: location(지역) / 시간: Year)
- 인구수*연령대(범주형) → 새로운 파생 변수 7개

R² : 0.99
MAPE: 0.085

Deep Neural Network

- 딥러닝에서는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음
- GridSearchCV를 이용한 튜닝 : 은닉층 4개, 은닉노드 3

R² : 0.95
MAPE: 0.14

* R²: 실제 데이터와의 일치 정도
*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 AR Linear Regression 모델로 2023년까지 각종 Data 학습 후, 미래 추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세 DATA를 예측함 (자살률,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추계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으며, 1인 가구 수는 19세 이하 연령 데이터의 과거 및 추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미래 추계 데이터로 인구 데이터만 활용함)

예측 분석 Roadmap

활용 데이터	예측분석 활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2001~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세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연령대별 교인수 - 교회당 교인수 - 현직 목사당 교인수 - 현직 목사당 은퇴 목사수 - 신학대학원 입학생수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연령별 주민등록 연안인구 * 7개 교단 교세 통계, 2005/2015 통계청 인구 센서스 기독교인 분포, 2001~2023 통계청 발표 주민등록연안인구, 2023 엠브레인 자체 전화/온라인 조사활용 • 미래 추계(2024~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연령별 추계 인구(2022년 5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 Linear Regr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까지 교인수 및 사회 지표 데이터로 학습된 Linear Regression 모델 이용 • 모델링 세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tians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회귀 - Location(지역), Age(연령대) 더미 변수화 - 인구수*연령대 interaction 효과 모델에 포함 - Lag1 변수값은 직전 연도 추정된 교인수

예측 데이터

- 예측 기간 : 2024~2050년
- 결과 데이터
 - 교인 수: 전국, 16개 시도별, 연령별, 도시규모별
 - 교회당 교인 수: 전국, 도시규모별
 - 현직 목사 당 교인 수: 전국, 도시규모별
 - 현직 목사 당 은퇴·장로 목사 수: 전국
 - 현직 목사 당 신학대학원 학생 수: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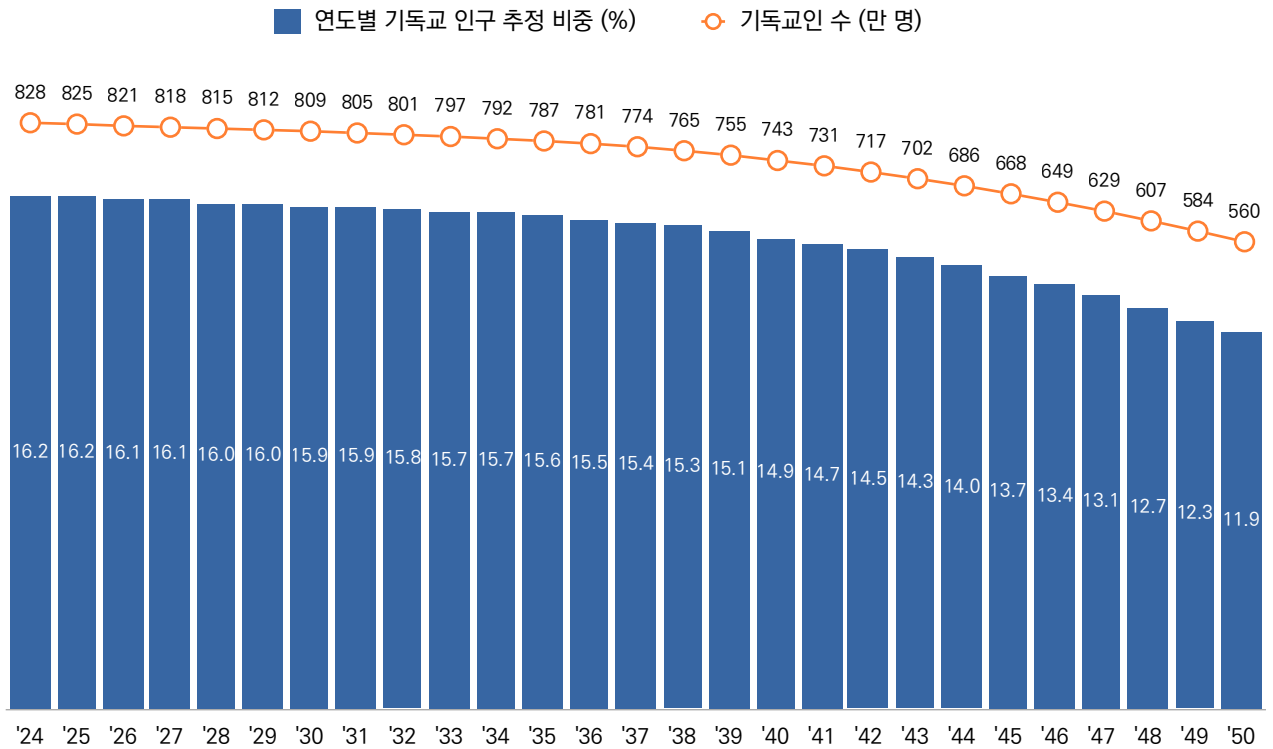
01

[전체 교세 예측]

2050년 한국기독교 인구, 11.9%까지 감소 예상!

- 2024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엔 11.9%로 예상했다.
- 기독교인 인구 수 기준으로 보면, 2025년과 2026년 사이, 2032년과 2033년 사이 0.4~0.5% 비율로 감소하다가 2038년부터는 감소율이 1%대로 벌어지고, 2043년 2%대, 2047년에 접어들면 3%대까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인 수의 하락폭은 대략 2038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예측 (2024~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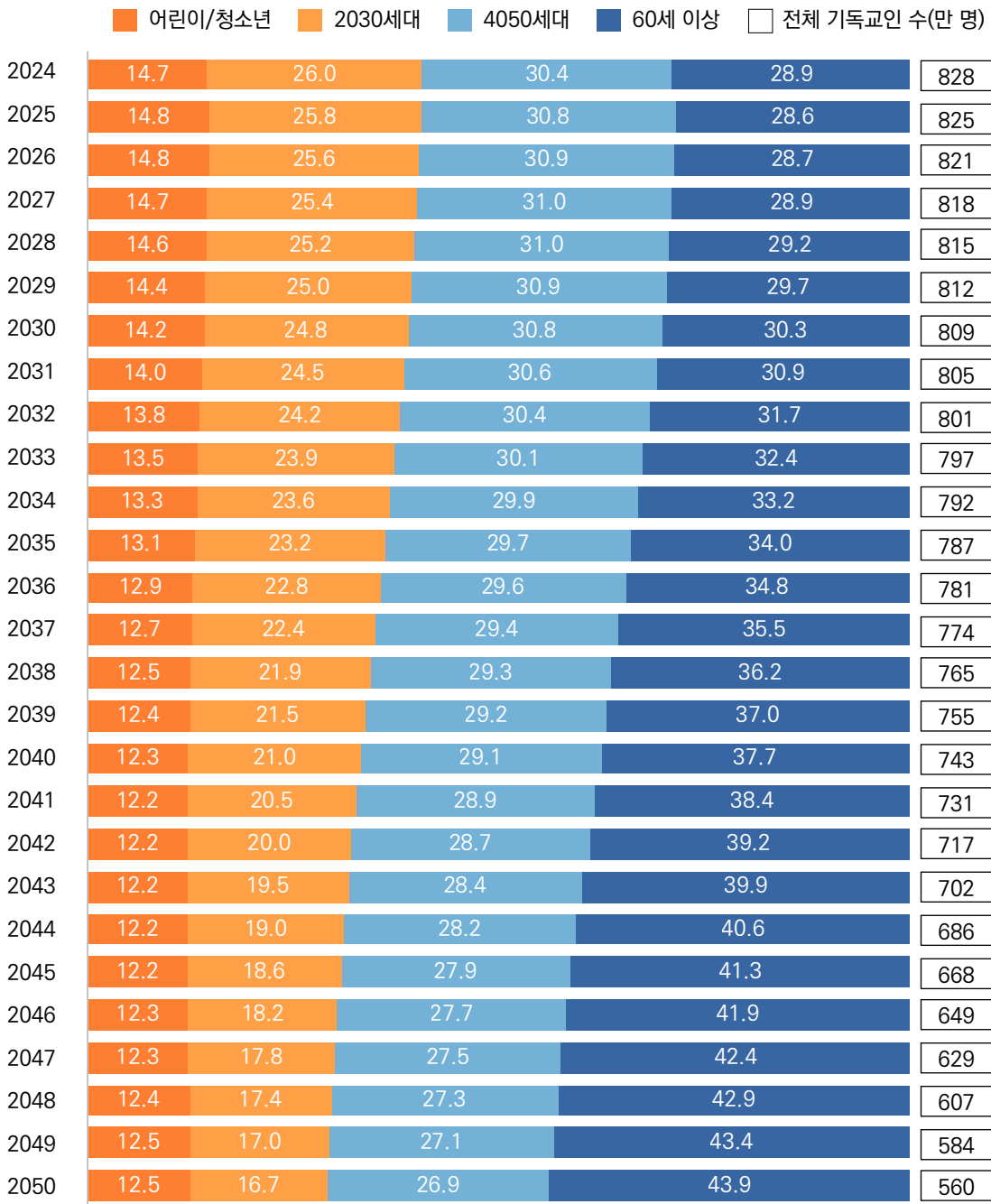
02

[연령대/세대별]

향후 30년 후, 60세 이상 고령 기독교인 43.9%까지 증가!

- 2024년 기준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을 보면 4050세대(30.4%)와 60대 이상 노년층(28.9%)이 비슷한 수준인데 이후 기독교인 비중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 2024년 이후, 연령별로 비교 분석을 하면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6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은 2050년 43.9%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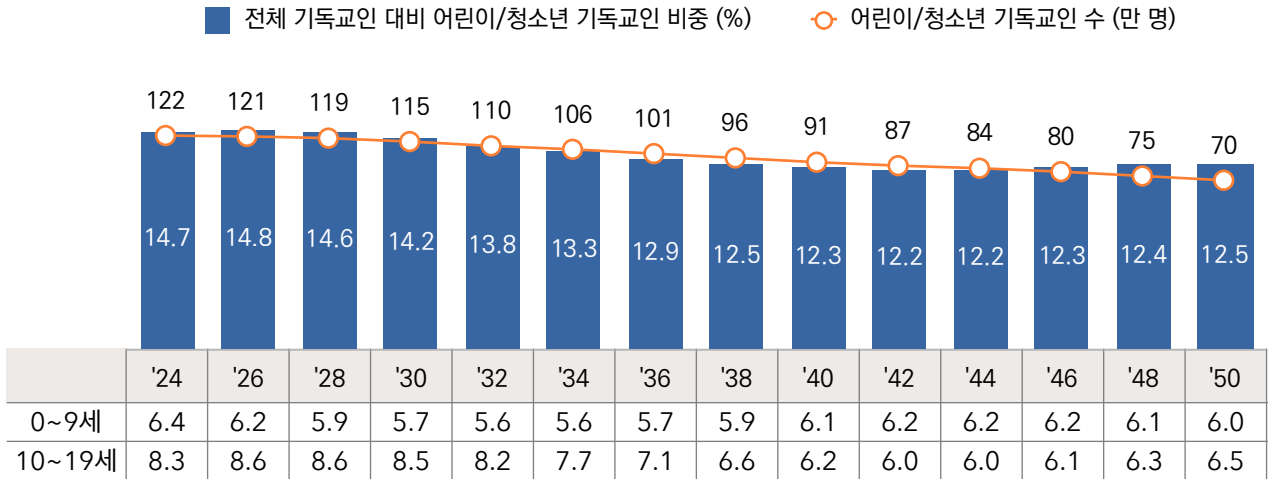
[그림]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 예상 (2024~2050, %)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 2050년은 현재(2024년)의 약 60% 수준!

-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14.7%에서 2034년 13.3%, 2050년에는 12.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0~9세 감소폭(0.4%p)보다 10~19세 감소폭(1.8%p)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122만 명에서 2050년에는 현 수준의 57%인 70만 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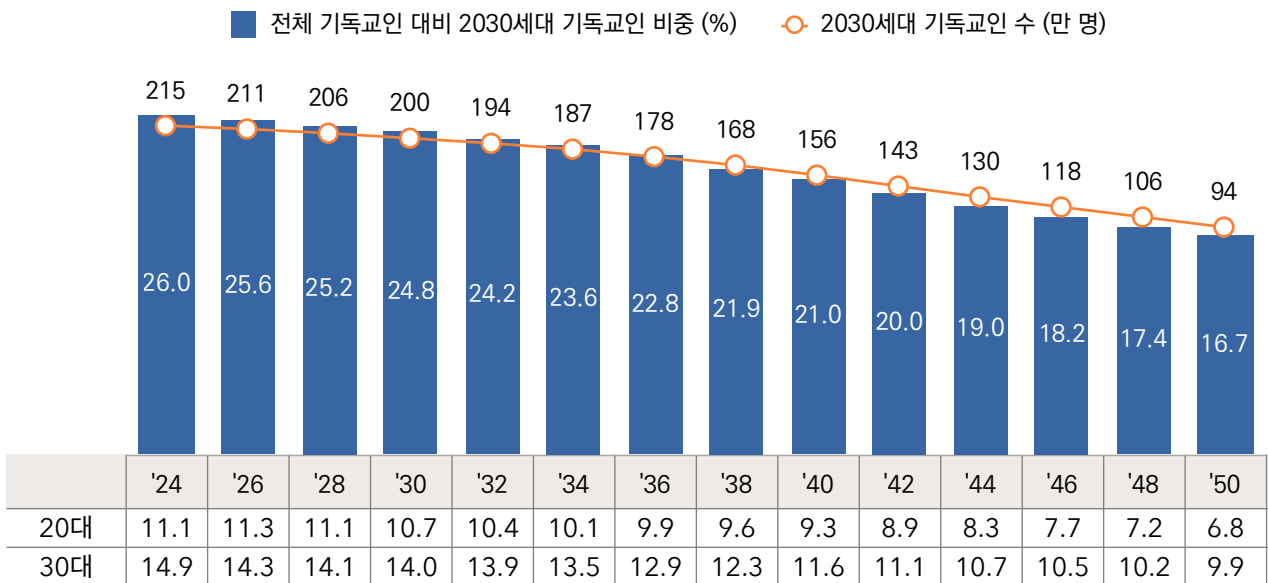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비중 및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030세대, 전 세대 중 가장 급격한 감소 예상

- 2030세대는 기독교인 비중 등 수치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한 세대이다. 2024년 26.0%였던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은 2050년 16.7%로 9.3%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30세대 기독교인 수는 2024년 215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 이후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이면 94만 명으로 2024년의 4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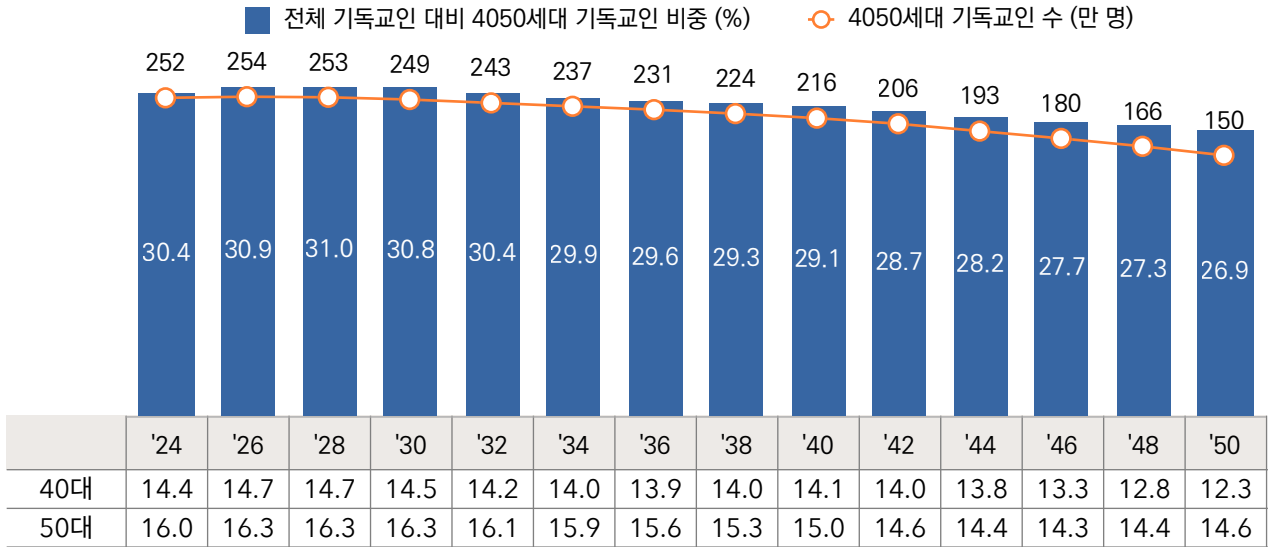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 및 2030세대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4050세대 기독교인, 2050년이면 현재보다 약 100만 명 감소 예상!

- 4050세대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30.4%에서 2050년 26.9%로 하락이 예측되는 가운데 2050년까지 2030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며, 50대(1.4%p) 대비 40대(2.1%p)의 감소율이 다소 클 것으로 예측했다.
- 2024년 현재 252만 명인 4050세대 기독교인 수는 2050년 150만 명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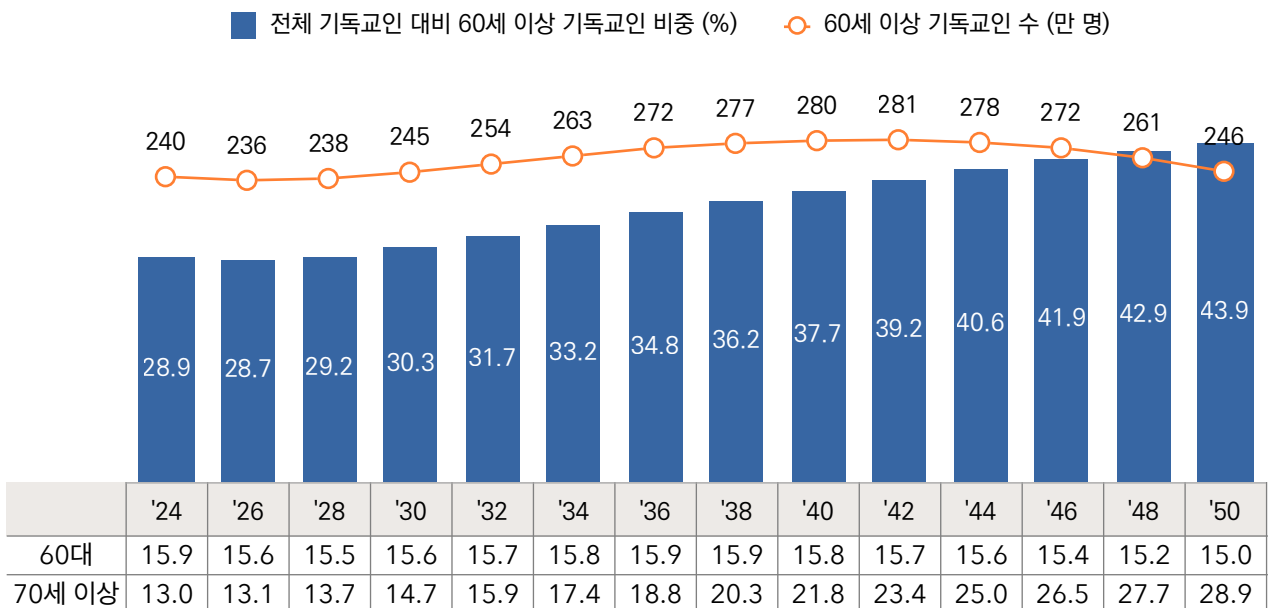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4050세대 기독교인 비중 및 4050세대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전 세대 중 70세 이상 기독교인 비중만(2024년 13.0%→28.9%) 증가 예상!

- 60세 이상 노년층 기독교인 비중의 경우 2024년 28.9%에서 10년 뒤(2034년) 33.2%, 2044년 40.6%로 꾸준히 증가해 2050년 4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기독교인 비중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7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은 2024년 13.0%에서 2050년 28.9%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한 증가 예상 그룹이었다.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60세 이상 기독교인 비중 및 60세 이상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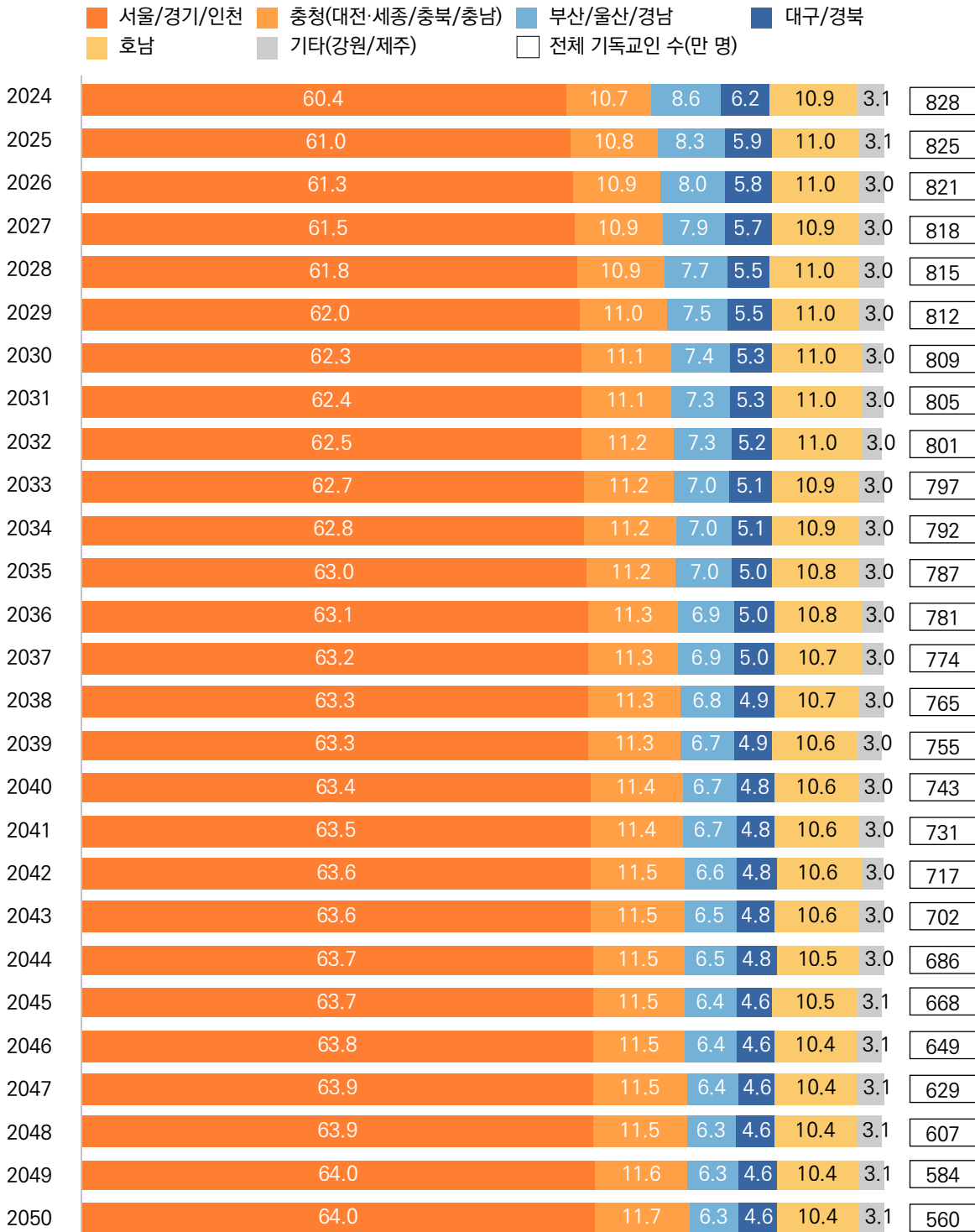
03

[지역별]

전국 6개 권역 중 '서울/경기', '충청' 2곳만 기독교인 비중 증가할 것!

- 전국 16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기독교인 수 대비 각 지역별 비중을 보면 2024년 서울/경기/인천 60.4%, 호남 10.9%, 충청 10.7% 등의 분포를 보였다.
- 2050년에는 6개 권역 중 서울/경기와 충청 지역 두 곳만이 2024년 대비 기독교인 비중(각각 3.6%p, 1.0%p)이 증가하고 다른 지역은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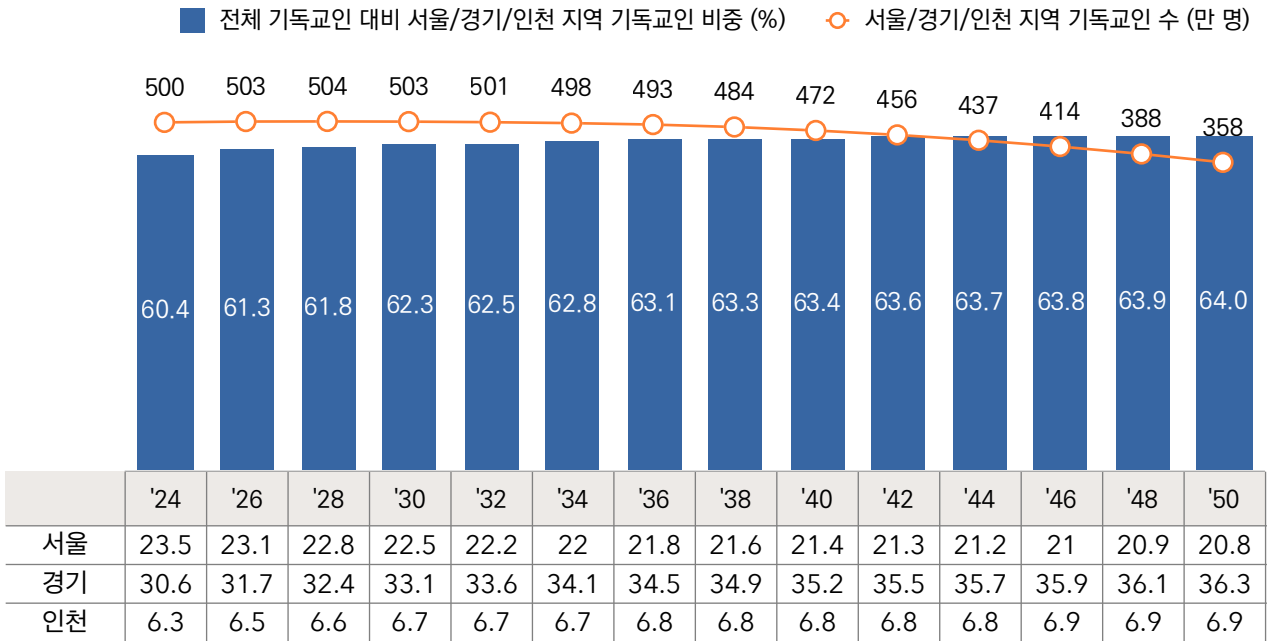
[그림] 전체 기독교인 수 대비 지역별 비중 예상 (2024~2050, %)



2050년, 서울·경기인 지역에 기독교인 집중화 현상 강화돼!

-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지역은 2024년 이후에도 타 지역과 달리 지속적으로 기독교인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도 전체 기독교인 3명 중 2명 가까이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나, 경기/인천은 2050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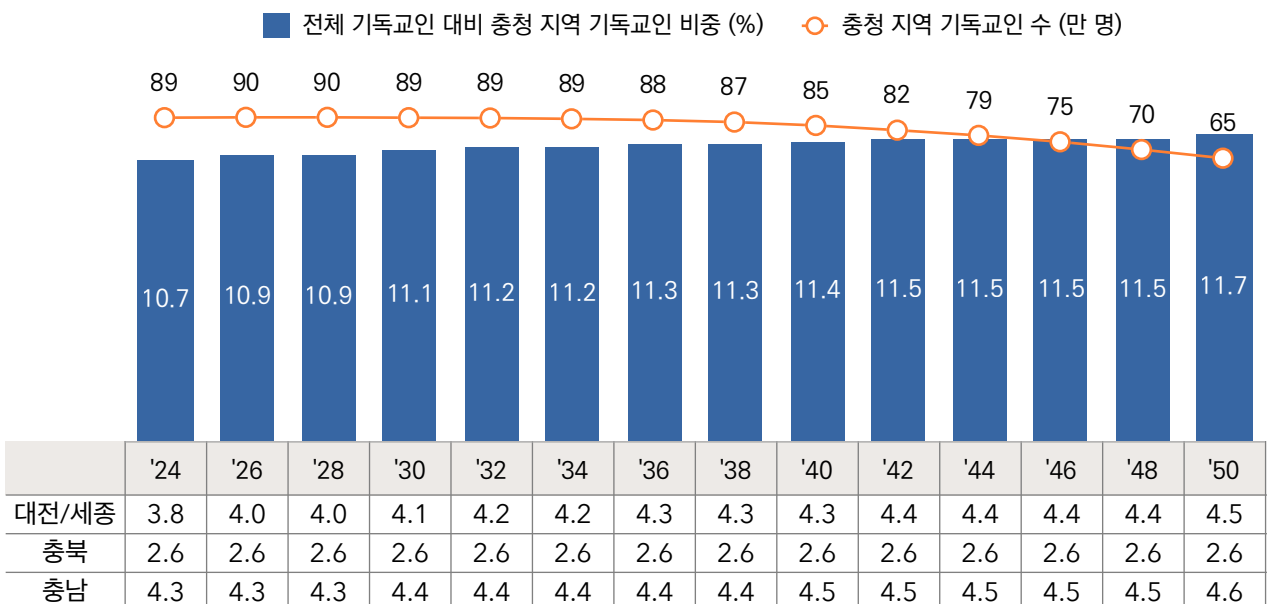
[그림] 서울/경기/인천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대전/세종’과 ‘충남’은 기독교인 수 비중 다소 증가 예상!

- 같은 충청 지역에서도 충북 지역은 기독교인 수 비중이 2.6%로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 대전/세종과 충남 지역은 각각 0.7%p, 0.3%p씩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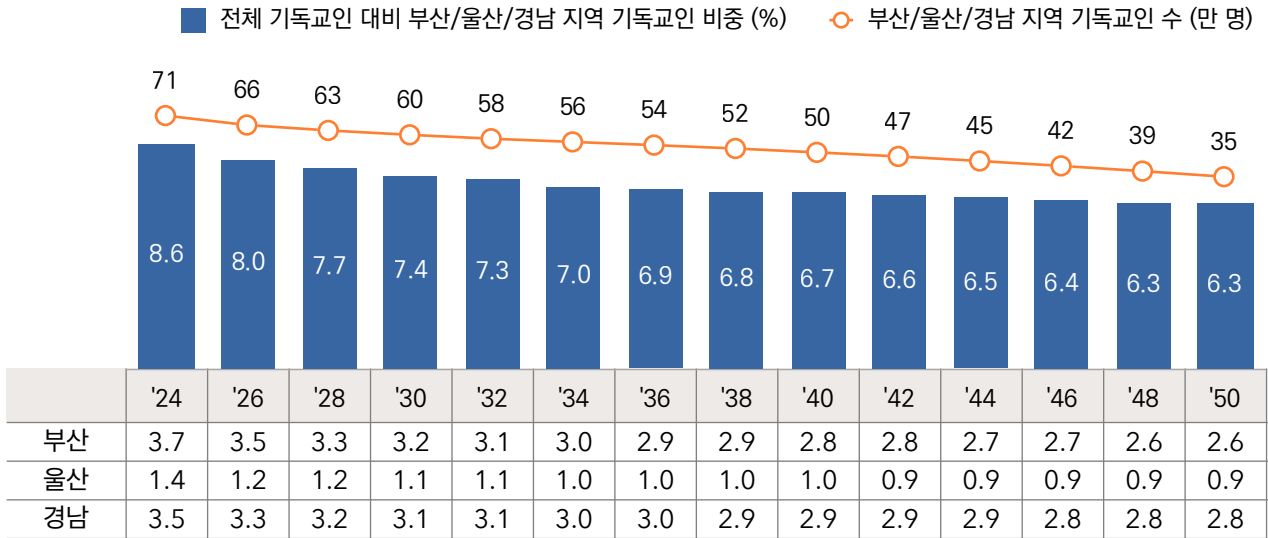
[그림] 충청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2024년부터 부·울·경 지역 중 울산 지역의 기독교인 비중 1% 미만 예상!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기독교인 비중을 예측한 결과, 부울경 세 지역 모두 2050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였고, 울산 지역의 경우 2042년, 약 20년 후면 기독교인 비중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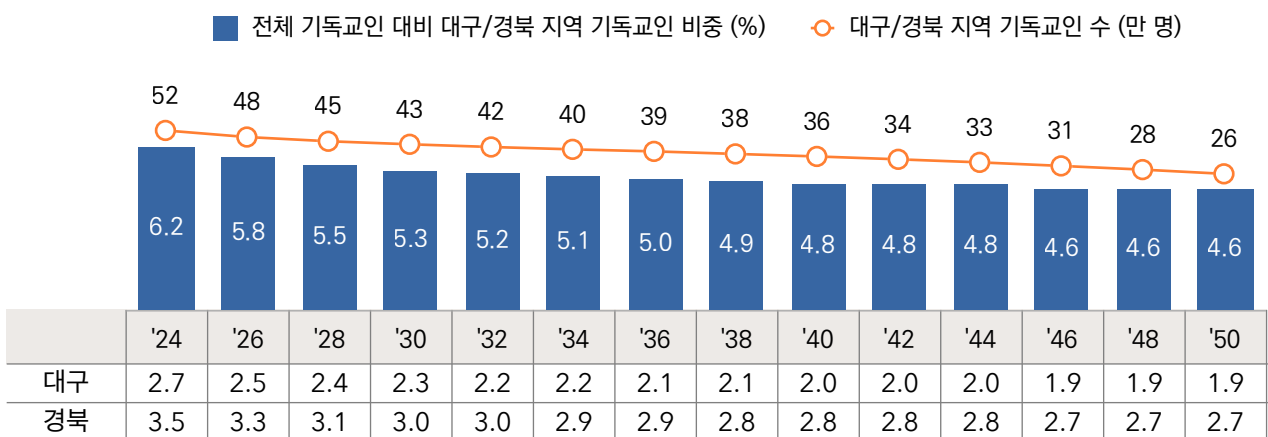
[그림]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대구/경북 지역, 앞으로 30년이면 기독교인 절반 정도로 줄어!

- 대구, 경북 지역은 2024년 전체 교인 수 대비 교인 비중이 6.2% 수준인데 2036년 이후 5% 아래로 줄고, 이후에도 기독교인 수 비중 감소 현상은 지속되어 2050년 4.6%(대구 1.9%, 경북 2.7%)로 예측했다.
- 2050년까지 대구, 경북 지역 기독교 인구 감소율을 보면, 2024년 대비 기독교인 수 감소폭은 경북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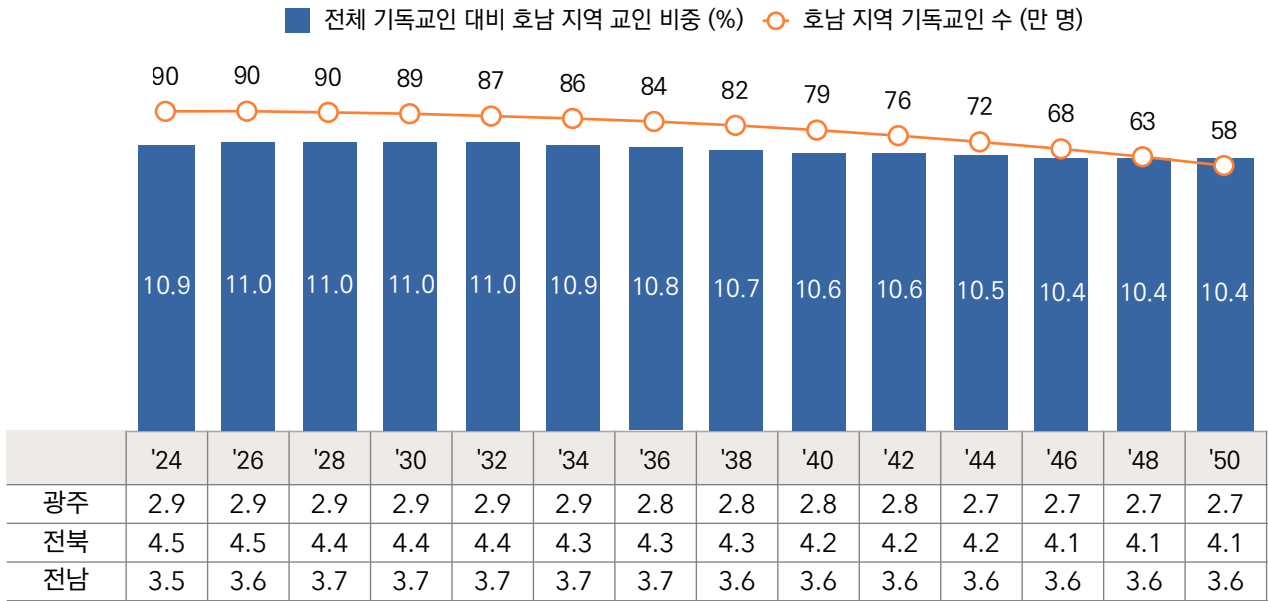
[그림] 대구/경북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호남 지역, 전반적으로 기독교인 비중 감소 더디게 진행

- 호남지역(0.1~0.4%p)은 향후 2050년까지 부울경, 대구/경북 등 영남지방(0.5~1.1%p) 대비 기독교인 비중 감소세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전남 지역의 경우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독교인 비중이 205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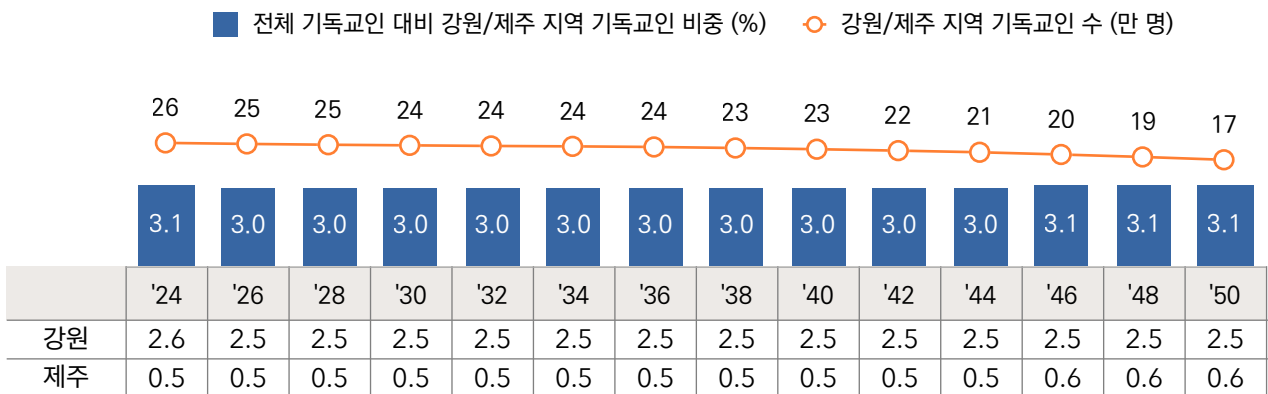
[그림] 호남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강원/제주 지역, 앞으로 30년 후에도 기독교인 수 비중은 비슷!

-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2024년 이후에도 3.0%~3.1%의 기독교인 비중을 유지하며, 2050년까지 기독교인 수 비중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주 지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강원/제주 지역 기독교인 비중 및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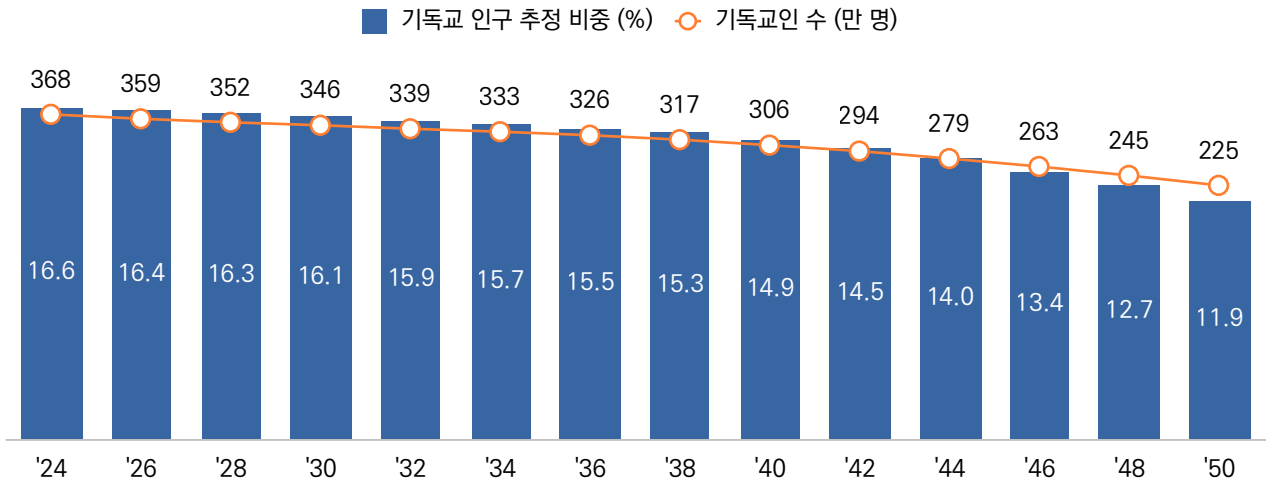
04

[대도시/농어촌 지역 교세]

2050년 대도시 기독교인 비중, 전국 평균 예측치(11.9%)와 동일 수준으로 떨어질

- 대도시 지역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기준 전국 평균인 16.2% 대비 다소 높은 16.6%였으나 2050년은 11.9%로 전국 평균 기독교인 비중 예측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 2024년 368만 명인 대도시 지역 기독교인 수는 2042년이면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 225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30년이면 현재 기독교인의 61% 정도라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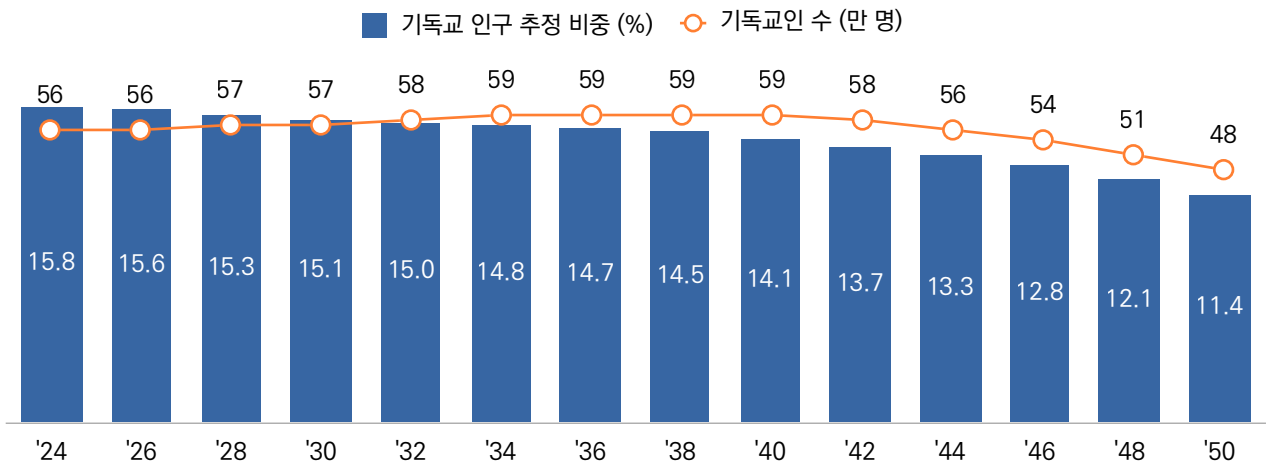
[그림] 대도시 지역 기독교인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예측



농어촌 기독교인, 대도시 대비 기독교인 수 감소폭은 훨씬 낮을 것

-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24년 기독교인 비중이 15.8%에서 2050년 11.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의 경우 기독교인 수가 2024년 56만 명에서 2037년 59만 명까지 다소 증가했다가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50년에는 48만 명으로 예측했다. 대도시(39% 감소) 대비 농어촌 지역(14% 감소)이 상대적으로 기독교인 수 감소폭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농어촌 지역 기독교인 수 및 인구 대비 비중 예측



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한국교회의 교세 현황과 향후 추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는 전체적인 교인 수의 하락(2011년 전 인구의 20.6% - 2023년 16.3% - 2050년 11.9% 예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 교세의 급속한 하락(2001년 27.8%-2023년 14.6% - 2050년 12.5% 예상)과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2030 세대의 교세 현황(2001년 30.1% - 2023년 26.1% - 2050년 16.7% 예상)이 눈에 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증가 현상(2001년 13.5% -2023년 29.1% - 2050년 43.9% 예상)은 괄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 비율(63.2% 예상) 또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도 우리의 우선적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의 교세 변화와 향후 추계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현황과 변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오늘과 내일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사회 현상에 대한 현실과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의 경제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과거와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의 경제구조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희생적 생존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을 조성하였다. 무역에서 얻어진 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분배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현실 속에서도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높은 물가와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열악한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높일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하여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여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압력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각자도생의 문화를 형성한다. 공동체를 위한 돌봄과 나눔을 생각하거나 실천할 여유를 주지 않는 각자도생의 문화는 교육 영역으로부터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시험에 대한 집착과 공정에 대한 왜곡은 교육 영역에서 가속화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교육 현장의 위기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이러한 왜곡의 결과적 부산물이다. 또한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상징되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식과 코인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써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불안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현상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유례없이 높은 자살률과 저출생률은 한국사회의 미래가 암울함을 상징적으로 경고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향한 경향성은 급격한 인구 감소,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청년 세대의 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상대적 인구 증가율이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미래임을 말해준다.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 예측은 한국교회의 현황과 미래 예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주목하게 된다. 교회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연구, 인식이 필요조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과제는 곧 한국사회의 과제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한국사회의 경제, 교육, 사회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 사회의 과도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가 동반되는 각자도생의 문화가 개인적 일탈이나 욕망

결과 의의

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과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과제를 갖는다. 교회와 세상은 매우 유기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즉 '교회는 세상 안에(in the world)'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앙의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더욱 구체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출생 문화 속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유년-청소년-청년층, 반면에 증가하는 노년층과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 과제들은 편만한 '각자도생의 문화'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버거운 과제들이다. 우리는 작금의 '청년의 문제는 바로 노인 문제의 결과일 뿐'이라는 본 보고서의 관찰과 분석에도 주목하게 된다. 즉, 노인 문제의 원인이 곧 청년 문제를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증가하는 노인 1인 가구는 곧 오늘 청년 문제가 가져올 내일의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들의 근본적 치유와 극복은 전 세대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not of the world)'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60대와 70대는 교회의 다수로서 공존해야 한다. 이때 교회가 세상 안에만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젊은 세대의 이탈, 혹은 노인 세대의 소외는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안에 존재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는 노인층을 존중하며, 60, 70대의 노인층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듯이 교회 안의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교회의 소통문화와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는 축소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성장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교회성장론에 대한 반성과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회신학 정립과 실천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각자도생의 문화'의 극복과 '가성비 위주의 물질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참여와 돌봄과 나눔이 실천되는 생명 중심의 공동체 형성'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가치를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귀중히 여기고, 소망하는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과 신앙공동체에 의하여서만 실현이 가능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의 가능성에 속한 과제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참된 영적 공동체로 거듭 나아가야 한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물질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영적-물질관의 실천을 보여주는 신앙인과 교회가 되도록 신앙교육과 실천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과 나눔의 실천, 즉 사랑을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Gabe)를 체험한 이들이 받은 과제(Aufgabe)임을 자각하며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를 품어 내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희망을 잃어가는 유-소-청년 세대로부터 1인 가구 노인 세대의 고독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과제를 사랑으로 품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마음에 새기며, 그 실현을 위한 삶으로의 초대가 본 보고서가 함의하는 핵심 메시지이며 도전이다.